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

2017년 여름학기 개강안내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은 자기 자신,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명	요일/시간	형식	강사
1꼭지 고등부	정의, 지키면 나만 손해인가? 플라톤 「국가」 1권 강독	7월 11일 개강 매주 화요일 (총6강), 저녁 7:00 ~ 9:00	읽기 및 강의	이한나 (철학과 석사수료)
2꼭지 고등부	한여름밤에 읽는 서양철학과 미술의 역사	7월 13일 개강 매주 목요일 (총6강), 저녁 7:00 ~ 9:00	읽기 및 강의	김혜영 (철학과 박사과정)
3꼭지 고등부	삶을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기	7월 14일 개강 매주 금요일(총6강) 저녁 7:30~9:30	읽기 및 강의	손홍국 (철학과 박사수료)

신청정보

신청기간 : 2017년 6월 20일 ~ 7월 14일
 강의기간 : 2017년 7월 11일 ~ 8월 24일
 수강료 : 꼭지 당 8만원
 문의 : youthphilo@hanmail.net
 010-9884-0166 (백송이)

신청방법

- ①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youthphilo@hanmail.net로 송부
- ② 신청확인 안내메일 확인
- ③ 신청확인 안내메일에 기재된 계좌로 강의료 입금

* 강의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층 210호 강의실

* 다음 카페_ <http://cafe.daum.net/youthphilo> (전남대 철학교실 또는 청소년 철학교실 검색)

 twitter.com/youthphilo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정의, 지키면 나만 손해인가?

플라톤, 『국가』 1권 강독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정의다. 촛불 혁명 후 정권교체를 이루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이 대단한데, 그 열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목숨 걸고 투쟁했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나라 팔아먹고 독립운동가들 괴롭혔던 친일파 후손들은 명명거리며 잘 사는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오랫동안 이런 역사를 지녔던 우리에게 착하게 살면 바보라는 것이 현실적 지혜 아닌가?

사실, 이런 정의에 대한 문제는 우리만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기원전 4~5백년 전에도 고민했던 고전적인 물음이다. 정의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소크라테스에게 트라시마코스가 답답해하며 말한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강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하는데,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현대화시켜 강자를 돈 있는 사람으로 바꿔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답할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플라톤의 『국가』 1권을 읽어보며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한 날 신기루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정의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00분 ~ 9시 00분
- 강의기간 : 2017년 7월 11일 ~ 8월 15일 (6회)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실
- 진행: 이한나 (전남대학교 철학과 석사수료)
- 교재: 매 수업 시 수업자료 배부함.
- 수강대상: 17~19세 청소년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7월 11일	오리엔테이션(플라톤 & 『국가』 소개)	읽기 및 강의와 토론
2	7월 18일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3	7월 25일	트라시마코스 주장 반박 1	
4	8월 1일	트라시마코스 주장 반박 2	
5	8월 8일	플라톤의 정의는?	
6	8월 15일	철인정치 VS 민주주의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여름밤에 읽는 서양철학과 미술의 역사

철학과 예술은 어떤 관계일까? 「한여름밤에 읽는 서양철학과 미술의 역사」는 철학자들이 그동안 무엇을 예술이라고 규정했고, 철학사와 미술사가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는지를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에서부터 모든 것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다원주의 시대의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철학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 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철학적 텍스트는 아서 단토(A. Danto)의 『예술의 종말 이후』, 『일상적 인 것의 변용』, 존 듀이(J. Dewey)의 『경험으로서 예술』입니다. 강의 방식은 철학과 예술의 관계를 청소년의 관점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00분 ~ 9시 00분
- 강의기간 : 2017년 7월 13일 ~ 8월 24일 (6회)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실
- 진행: 김혜영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 수강대상: 17~19세 청소년
- 교재: 매 수업 시 수업자료 배부함.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7월 13일	“무엇이 예술일까?” - 예술에 대한 철학사적 정의들1	고·중세 미술을 중심으로
2	7월 20일	“무엇이 예술일까?” - 예술에 대한 철학사적 정의들2	모더니즘 미술을 중심으로
3	7월 27일	“무엇이 예술일까?” - 예술에 대한 철학사적 정의들3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을 중심으로
4	8월 10일	“예술은 끝났다” - 단토의 예술 종말론	단토의 이론을 중심으로
5	8월 17일	“재구성되는 예술의 개념” - 예술은 끝나지 않았다	예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6	8월 24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 - 삶으로서의 미학	다원주의 시대의 예술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삶을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기

우리의 삶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대개 생각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은 바로 우리의 생각 자체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생각이 변하면 삶도 세계도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물음에 답하려고 고민했다. 이제 본 강의는 우리가 잘 생각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개의 철학 고전들과 함께 토론하고 탐구해 보고자 한다.

- 일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강의기간 : 2017년 7월 14일 ~ 8월 18일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실
- 진행: 손홍국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 수강대상: 17~19세 청소년
- 교재: 매 수업 시 수업자료 배부함.

* 수강인원 : 수강인원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7월 14일	생각한다는 것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1권1장, 5권2장>	
2	7월 21일	철학적 사유와 삶 <플라톤, 『국가』7권>	
3	7월 28일		
4	8월 4일	개념의 형성 <어빙 코피, 『논리학 입문』3장>	
5	8월 11일	생각의 길 <데카르트, 『방법서설』2부>	
6	8월 18일	한계를 깨닫는 것 <칸트, 『순수이성비판』 선험론적 연역>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청소년 철학교실

1. 청소년 철학교실의 탄생 배경

청소년 철학교실은 2005년 여름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철학교실>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빛고을 철학교실은 <교사를 위한 윤리학>과 <청소년 철학교실>, <기초 라틴어 강좌>, <기초 희랍어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06년 전남대학교 철학과가 정부의 BK21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함으로써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빛고을 철학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철학교실>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인문강좌>로 세분화되었고, 현재 청소년 철학교실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주관으로 각 계절마다 (1년 4학기) 다양한 주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철학교실의 운영 목적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성인들 못지않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기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혹은 ‘왜 살아야 하는지’ 등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묻고 대답해볼 기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전남대 <청소년 철학교실>에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좁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넓게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청소년철학교실 외부강의 운영안내

인문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 철학교실 개설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청소년 철학교실은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와 협약 하에 강사가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출장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는 1꼭지 당 8회(주 1회, 2시간)로 이루어지며, 원활한 토론을 위해 참여자는 20명 내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획 의도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과 운영방식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철학교실 출장 강의를 지난 2016년 광주·전남지역의 16여개 고등학교에서 28개 분반의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외부 출강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youthphilo@hanmail.net